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7期(2026.04.24) WWW.MINGHUI.ORG

한글판 1051호 minghui.or.kr



▲ 2026년 4월 19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 모여 1999년 '4·25' 1만 명 평화 청원을 기념했다. 현장에서는 기자회견과 단체 연공이 열렸고 분위기는 장엄하고 상서로웠다. 많은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 참석해 지지를 표명하며 수련자들이 27년 동안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박해를 반대해 온 정신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주요 내용

- 【평론】 공산당 수업: '연공이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거짓말인가?
- 【평론】 '4·25'는 텐진 사건만이 원인인가?
- 【수련】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 【수련】 명혜망에 행사 보도를 작성할 때의 몇 가지 기본 요건에 관해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0

■ 수련교류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12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 19

명혜망에 행사 보도를 작성할 때의 몇 가지 기본 요건에 관해 25

화를 잘 내는 집착을 닦아 없애다 33

지역 수련생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병업 고비에 대한 나의 견해 38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다 42

■ 시사평론

공산당 수업: ‘연공이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거짓말인가? 45

‘4·25’는 텐진 사건만이 원인인가? 47

정보의 비대칭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독립적 사고를 유지할 것인가? 5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4월 6~12일, 선원(神韻) 8개 동일 규모의 예술단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일본 등 6개국 8개 도시에서 46회 공연을 펼쳤다. 그중 유럽·북미의 여러 정계 인사는 선원을 관람한 후, 공연이 영감을 주며 인류가 공동으로 소중히 여기는 전통 가치관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선원이 인간과 신의 연결을 재현해 마음을 울리며 그 의미가 깊다고 찬사를 보냈다. 뉴욕 시 의회 부의장 윌리엄스는 선원 공연을 “아름답기 그지없다”, “매우 훌륭하다”라고 묘사했다. 그녀는 “그들의 기량은 뛰어나며, 짧은 두 시간 안에 중국 5천 년 역사를 시간의 맥락에 따라 진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선원이 전통문화를 보여준 것에 찬사를 보내며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니베이로는 “이 공연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인간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선양하며 인류의 선량한 면을 보여주어, 우리가 신앙의 가치, 특히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공연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마음을 울립니다”라고 찬탄했다. 그녀는 또한 “저를 가장 감동하게 한 것은 중국에서, 어쩌면 다른 국가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겪는 박해입니다”라며 “이 부분의 내용이 가장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파르고시는 공연이 매우 장관이라며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고 찬탄했다. “매우 웅장합니다. 이런 공연을 ‘웅장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와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기적이고,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항상 무용, 발레, 문화 및 민속 공연을 좋아했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남다른 공연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처럼 젊은 민족에게 이러한 중국 문화는 거의 생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여정이자 생활 문화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수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독일 지크마르스첼 시장 외르크 아그테가 쾰른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하고 찬탄했다. “솔직히 말해, 공연 시작부터 막이 내릴 때까지의 매 초마다 저는 끊임없는 새롭고 놀라운 감동 속에 빠져 있었으며, 이는 정말 유일무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공연은 매우 큰 감동을 주며 어떤 영상 자료도 이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오직 현장에 직접 와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공연을 꼭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방위적인 감각의 향연이고 청각이든 시각이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람의 내면에 가져다주는 감동이든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볼티모어 시의회 의원 15명은 선원예술단이 문화 분야에서 이룩한 비범한 성취를 표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크리스 밴홀런(Chris Van Hollen)은 선원 공연 주최 측인 워싱턴 D.C. 파룬따파 학회에 서한을 보내 선원예술단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원예술단은 2026년 1월 버지니아주와 인접한 미국 수도 워

싱턴 D.C.에서 10차례 공연한 데 이어, 2026년 4월 23일과 24일에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에서 다시 2회 공연할 예정이다. 연방의원, 주의원 및 카운티, 시 정계 인사들이 잇달아 표창이나 축하 편지를 보내 선원예술단이 예술과 문화 전승에 이바지한 탁월한 공로를 표창했으며, 아울러 공연이 훌륭하다고 극찬하며 각계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환영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인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원 예술가들은 일본 도쿄 신주쿠, 하치오지(八王子)시 등지에서 각각 11회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래 모두 신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인류가 더 높은 존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중국 전통문화에 깊은 인식이 있는 한 관객은 공연이 깊은 깨달음을 준다고 감탄했다. “공연이 너무 훌륭합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의원 야마다 히로시는 처음 선원 공연을 관람한 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음악, 무용, 3D 스크린 등이 모두 매우 뛰어나고 다방면의 예술적 표현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선인(眞·善·忍) 같은 미덕은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치 이념이며 대단합니다”라고 감탄했다.

일본 유명 배우이자 무용가인 하야시 요이치는 “공연의 훌륭함이 언어의 한계를 초월해 어떤 어휘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예계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선원처럼 영혼을 뒤흔드는 무대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감탄했다. “공연이 제게 엄청난 에너지를 줬습니다!” 선원 관람 후 그는 자신이 예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승화됐다고 느꼈다며 “이런 공연을 보면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신이 진실하

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4월 16일, 호주 시드니 파룬궁수련자들은 금융 상업 중심지인 마틴 플레이스에서 1만 명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청원인 ‘4·25’ 27주년을 기념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범죄를 폭로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러 귀빈은 “수억 명의 중국인이 이미 진상을 알게 됐고, 중국인들이 파룬궁을 선택한 것은 무언의 국민투표이며, 파룬따파 ‘진선인’ 원칙은 우리 모두의 생활 원칙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1999년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청원 및 27년간 지속된 반(反)박해의 용기, 이성, 끈기를 찬양하는 동시에, 중공이 파룬궁과 선원예술단을 초국가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규탄했다.

호주 훈장 수훈자이자 원로 법학자인 데이비드 플린트 교수는 집회에서 파룬궁을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으로서 세상을 밝힌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익을 챙기는 중공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린트 교수는 발언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본성을 폭로했다. “중공 독재 정권은 군대와 경찰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공원에서 완만한 공법을 연마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파룬궁에 정치적 요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아무런 정치적 요구가 없으며, 그들의 이념은 바로 ‘진선인’입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널리 환영받았고 수련자가 많았으며 그 수가 중공 당원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는 중국인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무언의 국민투표를 한 것인데

중공은 이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만과 잔혹함, 불관용 위에 세워진 중공 정권은 이와 전혀 다른 ‘진선인’ 신앙 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파룬공수련자들은 시내 커머셜 베이(Commercial Bay) 광장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단체 연공을 하면서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4·25’ 평화 청원 27주년을 기념하며, 공법을 시연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려 많은 행인이 신앙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했다. 말콤 맥레이(Malcolm Macrae)는 현장에서 파룬공수련자들의 연공과 평화로운 시연을 본 후 매우 감동했다. 파룬공수련자들이 ‘4·25’ 평화 청원에서 보여준 정신을 알게 된 말콤은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들(파룬공수련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며,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는 인류 사회가 마땅히 끊임없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나라든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 더 선량하고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는 흔히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4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파룬공수련자들은 초청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UC Davis)에서 열린 ‘피크닉 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파룬궁 천국악단의 연주는 평화로운 에너지를 데이비스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관중의 이목을 끄는 초점이 됐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작문과 교수 신시아 켈로그(Cynthia Kellogg)는 현장에서 천국악단의 연주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켈로그는 ‘진선인’에 매우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또 현대 사회가 ‘인(忍)’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탄했다. “우리는 더 많은 포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4월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도심 카지노 거리 베네치안 호텔 앞에서 행사를 열어 27년 전 베이징에서 발생해 중국 국내외를 놀라게 한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 청원 사건을 기념했다. 당일 저녁 행사 현장에서 수련자들은 텐트를 치고 진상 현수막을 걸었는데, 눈길을 끄는 문구가 카지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거나, 수련자가 나눠주는 진상 전단을 받고 수련자와 교류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았고 박해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태미는 수련자에게 말했다. “이곳에 계시면서 중공의 초국가적인 탄압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행사를 개최할 때 언제든지 지지하고 싶습니다.”

4월 4일과 4월 11일 두 주말, 파룬궁수련자들이 캐나다 몬트리올 도심에서 진상을 알리며 대중에게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에 관심을 촉구하고 중공이 박해를 해외로 뻗치고 있음을 폭로했다. 대학생 니나 아오트메이르(Nina Aotmeir)는 중국에서 파룬궁이 겪고 있는 박해를 처음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위구르인들이 중공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파룬궁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 집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이런 범죄에 직면해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몬트리올에 자유당 전당대회 참석차 온 프리티(Preeti)는 오늘 행사가 그녀를 감동하게 했다고 “이 대열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으며 다양한 민족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현수막을 들고 있네요. 그들

은 마음이 아주 잘 맞고 매우 강인해서 감동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친구에게서 파룬궁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고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에 찬성한다며 “저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이 공법을 수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덕들은 오늘날 세상에 부족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4월 15일, 영국 안보부 장관 댄 자비스(Dan Jarvis)는 상원 의원 앨턴(Alton) 경에게 보낸 답신에서, 대영박물관 진상 알리기 장소에서 한 파룬궁수련자가 중공 하수인에게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파룬따파에 대한 영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파룬궁수련자는 법에 따라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 정부든 영국 영토 내에서 개인을 겨냥해 저지르거나 지시한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공격 행위와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2026년 2월 23일, 영국 런던의 유명 관광지인 대영박물관 뒷문 앞에서 친공산당 성향의 중국인 여행사 기사가 진상을 알리던 한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폭력 공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런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이를 매우 중시해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국 하원 의원 페리알 클라크(Feryal Clark), 하원의원 프리트 카우르 길(Preet Kaur Gill), 하원의원 조 플랫(Jo Platt), 하원의원 파트리샤 퍼거슨(Patricia Ferguson), 하원의원 캐머런 토마스(Cameron Thomas), 하원의원 마크 프리처드(Mark Pritchard)가 이번 파룬궁수련자 피습 사건에 대한 관심 표하며, 어떤 외국 정부든 영국 영토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허베이성 싱타이시 닝진현의 57세 파룬궁수련자 양즈화(楊志華)가 2025년 9월 8일 ‘상황을 설명하라’는 구실에 속여 파출소로 불려가 스자좡 제 2 구치소에 4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갇힌 뒤 2026년 1월 28일 진저우시 법원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6년 4월 16일 그는 이미 구치소에서 스자좡 감옥으로 강제 납치됐다.

베이징시 순이구 파룬궁수련자 주광진(朱廣軍)은 2025년 9월 14일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다쑤거좡 파출소 경찰에게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한 후 순이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됐다. 2026년 4월 중순 주광진은 순이구 법원에서 14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3천 위안을 부과받았다. 주광진은 강제노동 1년, 5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은 적이 있다.

랴오닝성 푸순시 칭위안현 차오시진 파룬궁수련자 신쿠이(辛奎)는 2025년 11월 인접한 지린성 메이허커우시 산청진 바오민촌으로 가서 현지 시민들에게 새해 진상 달력을 나누어 주던 중 산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이후 부당하게 감금당하고 모함을 받았다. 2026년 3월 중순 메이허커우시 법원은 그녀에게 부당하게 8개월형을 선고했다.

후베이성 한촨시 파룬궁수련자 탕둥잉(唐冬英·여·75)이 샤오간시 샤오창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9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6000

위안을 부과받았다. 탕둥잉은 2025년 9월 18일 집에서 한촨시 공안국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청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줄곧 잉청시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2025년 12월 23일 샤오창현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시 76세의 파룬궁수련자 덩텐위(鄧天玉)는 2020년 10월 18일, 덩텐위는 사스구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책임자 장웨이홍(張魏紅, 이미 응보를 받아 사망)과 장어(張鄂), 사스구 공안분국의 천이첸(陳義群), 쥘진쑹(左勁松), 왕바오(王彪) 등에게 납치돼 징저우시 스서우 구치소로 끌려갔다. 11월 3일 밤, 덩텐위는 스서우 구치소에서 징저우구 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기간에 징저우구 구치소 부소장 리리(李莉)는 구두로 그녀에게 사스구 법원이 5년형을 선고했다고 통보했다. 뒤이어 징저우구 구치소 직원들(리리도 책임이 있음)은 덩텐위를 실험용 쥐로 삼아 먼저 그녀의 몸에서 두 개의 큰 주사기 분량의 피를 강제로 뽑아낸 후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했다. 주사를 맞은 후 덩텐위는 전신에 경련을 일으켰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쳤는데 이런 상태가 두 달 동안 지속됐다. 4개월 후, 2021년 9월 14일, 덩텐위는 후베이 한커우 감옥 입감 구역에 수감돼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현재 덩텐위는 부당한 징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파리 눈 온 뒤의 재회, 한 중국 유학생의 5년간의 심리 변화

글/ 프랑스 거주 자원봉사자

[명혜망] “저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당신에게 사과하러 온 겁니다!” 프랑스 파리, 폭설이 막 그친 어느 날 약 30세가량의 중국인 외모를 한 청년이 웃으며 큰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2026년 새해가 막 지나고 2~3일 전만 해도 여러 곳에서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오늘 흰 눈이 녹아 물웅덩이가 되면서 행인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눈 녹은 물을 밟으며 걸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이 한마디 사과를 위해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5년을 버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파리의 뻘레땅 백화점은 ‘파리 제2의 백화점’이라는 명성과 1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내가 중국 관광객에게 진상을 알리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백화점 길모퉁이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다. 내가 관광객 몇 명에게 진상을 알리고 잠시 서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진상을 알리려 했다. 뜻밖에도 그가 먼저 나에게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저를 분명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아주 낮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청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파리를 떠나 다른 지방 도시로 일하러 갑

니다. 아주 멀어서 다시 올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온 것은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청년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로 그와 내가 지난 5년간 몇 차례 마주쳤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첫 만남, 오해와 땅에 떨어진 신문

5년 전 저는 중국의 한 대도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느 날 브레땅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하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패널과 스피커를 세워둔 것을 보았습니다. 한자를 보자마자 아주 신기하게 느껴져 곧장 다가가서 보았더니 알고 보니 파룬궁이었습니다.

‘파룬궁’!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입한 것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기에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진상 신문을 한 부 건네주며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받아서 쓱 보고는 통명스럽게 아주머니 손에 다시 쭈셔 넣으려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땅에 떨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쪽을 지나갈 때면 기본적으로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을 피해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한번은 제가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주머니께서 또 저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왔죠? 유학 왔나요, 아니면 여행 왔나요?” 저는 속으로 ‘또 당신이네’라고 생각하며 통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주머니가 말씀하

셨습니다. “네, 몇 마디 나누고 싶어요. 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에서는 만나기 어려운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만났으니 참 인연이네요!”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 과륜궁에 반감이 있었기에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루하네요, 재미없어요!” 그리고는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저는 아주머니에게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자책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환점 “염황의 자손은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되지 않는다”

이후 몇 번 이곳을 지나가면서 아주머니가 중국인 관광객 몇 명과 아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아주머니와 관광객이 손을 잡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끔은 아주머니가 무리 지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약간의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바로 앞이라 백화점에서 멀지 않아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제게 인사하며 중국에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유학 와서 졸업하고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중국에 있을 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붉은 스카프를 매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주먹을

쥐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분투하고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한 것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것이고 마르크스는 독일 사탄교 신자예요. 우리는 중화의 자녀이자 염황(炎黃: 중국인의 시조인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니 마땅히 자신을 위해 분투하고 조국을 위해 분투해야 해요.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을 위해 분투한다면 곧 그것의 일원이 되니 탈퇴해야 합니다.”

이런 진상은 저를 아주 놀랍고 흥분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랬구나!’ 마르크스가 사탄교 신자였다니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년선봉대(소선대)와 공청단 탈퇴에 동의했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탈퇴 성명에 쓸 가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는 또 저에게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두 번 읽어보았고 이로써 우리가 자신의 조상을 배신하고 서양에서 온 유령과 마르크스라는 이 사탄교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바로 사이비 종교 조직입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중국 엘리트를 살해했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겪은 3년간의 바이러스 대유행, 이 재난은 중공이 퍼뜨려서 초래된 것입니다. 중공은 세상 사람을 초개나 노예로 여기며 임의로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제가 외국으로 유학 올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상을 들을 수 없고 중공이 선전하는 모든 것은 가짜이며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의문 해소 “여러분은 보수를 받나요?”

청년은 이어서 나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공청단과 소선대를 탈퇴한 그날부터 매일 이곳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눈으로 이곳을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파룬궁 아주머니를 보고 싶어요. 특히 중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거의 항상 인파 속에 있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주머니와 함께 중국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분이 아주머니 혼자가 아니라 몇 분 더 계신 것 같던데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관찰을 아주 잘했네요.”

그가 말했다. “아주머니,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 5년 동안 아주머니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쉽지 않으시더군요. 제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 아주머니를 뵈었을 때 그런 태도였고 파룬궁을 이해하지 못해 이성을 잃고 대했는데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원망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시며 이 모든 것을 아주 평온하게 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보수가 있나요?”

그는 또 물었다. “혹시 진상을 알린 사람 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렇게 헌신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청년,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만 말할게요. 매일 내가 이곳에 온다는 건 알죠. 다른 건 차치하고 매달 지하철

표를 사는 데만 90유로가 넘게 들어요. 이걸 내가 기꺼이 내 지갑에서 꺼내는 겁니다.”

청년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은 듯 눈빛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나는 이어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이고 파룬궁수련자는 바로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수련합니다. 장쩌민(江澤氏)이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두려워해 1999년 7월 20일부터 하늘을 가릴 듯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체포, 가택수색, 고문, 실형 선고를 가했으며 때려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고 파룬궁수련자의 장기적 출을 자행했습니다. 중공은 사악한 악마예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파룬궁에 먹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아이들이 파룬궁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그에게 더 나아가 설명해주었다. “선악에 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리이고 하늘은 중공을 멸망시키려 해요. 당신이 주먹을 쥐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분투하고 악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했다면 바로 중공의 일원이 된 것이고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킬 때 당신도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량한 중국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법제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을 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나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중공의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법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

하여 평안을 지키라고 권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구금되며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제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한결같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는 보수가 없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양심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이미 4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신이 모두 보고 계시고 신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작별 인사 “명혜망, 전법륜, 기억하겠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이 안 좋은데도 저는 기필코 아주머니를 뵈러 와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분명 오실 줄 알았거든요...”

청년은 또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여쭙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파룬궁은 너무 대단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룬궁은 고통 속에서 수련하고 고난 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군요.”

“파룬궁이 행하고 겪은 일들을 글로 써낸다면 그것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비할 데 없는 훌륭한 각본이자 아주 찬란한 걸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청년의 소감에 고마워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네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한마디 할게요.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 명혜망에 접속해서 대법제자라면 반드시 읽

어야 할 대법서적 ‘전법륜’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끝없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청년은 나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명혜망, 전법륜, 기억하겠습니다.”

흰 눈이 녹아 강물이 되면서 이 유학생이 파룬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오해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렇게 화창한 날, 우리는 각자 맑은 마음을 품고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이 ‘5·13’ 기고문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련생이 법을 얻기 전의 경험을 읽어보니 참으로 힘겨운 삶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수련생들의 수련 체험담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법을 얻기 전의 비참한 경험 이야기가 나오면 차마 끝까지 듣기 힘들었다. 어느 수련생의 체험담은 너무 처참해서 끝까지 듣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

사부님 법상 앞에서 연공을 준비하며 서 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일었다. ‘왜 수련생들의 전반생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걸까?’ 그 순간, 허공에서 한 가지 의념이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이 법을 얻기 위해서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사부님의 크나큰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여!’

나는 30여 년을 수련한 대법제자이고, 날마다 법을 공부하고 외운다. 하지만 세인의 많은 관념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착실하게 수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오래 수련하면서도 오늘에야 비로소 그 함의를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예전에 읽었던 수련 이야기 ‘성고령화(聖苦靈花)’가 생각난다. 그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다.

온갖 병으로 몸이 성치 않고 장애까지 있는 거지가 있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흑한과 폭염 속에서 노숙하며 끝없는 허기 속에 세월을 버텨왔다. 매 순간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때로는 운명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겼고, 때로는 하늘을 향해 왜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하냐고 분노에 찬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어느 날 거지는 우연히 법사를 만나게 됐고, 매일 법사가 불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점차 기운을 회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가 물었다.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법사가 손을 내밀자 순식간에 손 위에 오색찬란한 꽃 한 다발이 피어났다. 꽃들이 손 위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피어 있는 모습이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거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통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나 아름답구나.’ 법사가 꽃잎 하나를 따서 거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맛을 보아라, 어떤 맛인지.” 거지는 받자마자 바로 삼켜버렸다. 오랜 세월의 굶주림으로 허겁지겁 먹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었다.

꽃잎을 삼키고 나서야 거지는 정신이 들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꽃잎이 이렇게 쓸 줄이야! 극도로 쓴 맛에 그는 바닥을 뒹굴며 어쩔 줄 몰랐다. 법사가 말했다. “움직이지 마라.” 거지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었다. 차츰 쓴맛이 온몸의 혈관과 뼈와 근육을 타고 스며들더니 서서히 사라졌고,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생 겪어온 고통이 이 꽃잎 하나의 쓴맛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법사가 거지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굵어 있던 몸이 꽃꽂이 퍼졌고, 동상에 걸렸던 손발이 완쾌됐으며, 온갖 고질병이 모두 사라졌다. 몸 안팎이 깨끗하고 상쾌했다. 거지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통곡하며 법사에게 거듭 절을 올렸다.

법사가 그를 부축해 일으킨 후 선방에서 손을 한 번 휘두르자, 순식간에 방 전체의 바닥, 벽, 천장에 온갖 형태와 자태의 빛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크고 작게 빛을 발하며 가득 피어났고, 기이한 꽃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법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 꽃을 ‘성고령화(聖苦靈花)’라 하느니라. 나 역시 생생세세 세상의 구석 구석을 다니며 세상의 온갖 고통을 겪고, 고통을 참고 고통 속에서 수련하여 피워낸 꽃이다. 세인이 고통만 겪는다고 해서 이 성고령화를 피울 수는 없느니라. 오직 정법의 보호와 가지(加持) 아래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꽃잎 하나하나가 형성되려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거지가 말했다. “대사님,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이 성고령화를 키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중생을 위해서지!” 법사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도 앞으로 고통을 참고 수련하여 성고령화를 피워내고,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해야 하느니라…”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고생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오직 사람만이 고생을 하면 나쁜 일이고 고생을 하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수련인으로서, 고생을 하면 소업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층차도 제고할 수 있으며, 원만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당신이 말해 보라. 나는 사람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고, 나는 고생을 조금도 하고 싶지 않으며 편안하고도 편안하게 연공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당신은 업을 제거할 수도 없고, 心性(썩썩)도 제고할 수 없으며, 원만을 이룰 수도 없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각지 설법1-미국 제1차 설법)

사부님께서서는 지칠 줄 모르고 간곡하게 고통과 수련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했을까? 법공부 할 때는 연공인이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세인처럼 대처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억지로 이렇게 다독인다. ‘나는 연공이니 반드시 참아야 해, 나는 연공이니 반드시 높은 자세를 취해야 해.’ 법을 자신에 대한 일종의 구속으로 여기지, 법 속에 녹아들어 법과 동화되거나 진심으로 고난을 좋은 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 더더욱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수련 이후 체험담을 나눌 때도, 많은 경우 수련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병으로 고생했는지를 쓰고, 수련 후 대법이 몸을 정화해 오래된 고질병이 사라졌다거나, 대법을 수련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등을 쓰며 대법이 주는 인간 세상의 행복에 매우 큰 비중을 둔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막 법을 얻은 신수련생이거나 세인에게 흥법하거나 진상을 전할 때라면, 이러한 인식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20~30년을 수련한 오래된 수련생이다. 이성적으로 볼 때, 대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

보호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든 대법제자는 알고 있다. 우리가 사부님과 서약을 맺을 때(속세에 들어와 사부님의 정법을 돕고 중생을 구하는 것), 사부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셨다. 생생세세 윤회하는 가운데 한 순간도 사부님의 안배와 보호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법을 얻기 전의 고난과 우리가 생생세세 겪어온 고통과 고초 역시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업을 소멸하시고, 이를 덕(德)으로 전화시켜 대법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 이르는 사다리를 놓아주신 것이 아닌가? 생생세세의 업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번 생 전반생에 지은 죄업만 해도 18층 지옥에 떨어지고도 남을 것이다.

법을 얻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고 법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을 얻고 난 뒤에도, 그 고통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입에 달고 살면서 인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토록 강해도 되는가? 수련 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글 속에 ‘운명의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면, 이는 사부님의 안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가 겪은 고통은 생생세세 윤회하며 산처럼 쌓인 업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더 많은 죄업은 사부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감내하고 계신다. 법을 얻기 전에 겪은 고통조차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죄업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체험담을 쓸 때, 설령 수련 이전의 경험을 쓸 때라도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 우리의 업을 소멸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법을 들을 수 있고 이 법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덕과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수련 가운데 우리의 얼마나 많은 생각이 신(神)의 정념이고, 또 얼마만큼이 인간의 관념인가? 법 위에서 깊이 반성해 볼 만한 문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법제자라, 최후로 갈수록 마땅히 자신의 길을 잘 걸어야 하며, 시간을 다그쳐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많은 일을 해놓고 되돌아보면, 모두 사람의 마음으로 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한 것이지, 정념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속에는 대법제자의 위덕이 없다. 바꿔 말하면, 신이 보기에 비록 일은 했지만, 그것은 일을 얼버무려 한 것이고 위덕이 아니며 수련도 아니다. 비록 했지만 말이다.”(각지 설법11-대법제자는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일부 수련생들의 진실한 모습이다. 지금까지도 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즐거워하는 것’과 ‘인간 세상의 행복 추구’ 사이에서 진심으로 정념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神)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이 글의 관점은 불합리한 것을 무조건 참고 원칙을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더더욱 끝없는 시련 속에 피동적으로 빠져들어 자신의 명백한 면이 나와 정법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다른 공간의 교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 알아채고 정념으로 제거해야 한다.

개인의 현 단계에서 얻은 얇은 소견이며,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명혜망에 행사 보도를 작성할 때의 몇 가지 기본 요건에 관해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해외 행사 보도는 명혜망 콘텐츠의 중요한 부분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세계 각지에 널리 전해진 성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사회가 파룬따파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명혜망에 원고를 투고함으로써 우리는 현지에서 진상을 알리는 행사의 성과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대법제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가져다주며 전 세계가 대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갈수록 많은 수련자가 명혜망에 행사 보도를 제출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하고 풍성한 보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모든 보도에는 각지 수련자의 정념과 노고가 담겨 있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이 난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선량함과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이러한 글은 진상을 알

리는 소재로서 매우 소중하며 명혜망의 영상, 정기간행물, 신문 및 기타 각종 출판물에도 자주 채택된다.

많은 수련자도 투고하고 싶어 하지만 좋은 행사 보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더 많은 수련자가 더 영향력 있는 보도 기사를 작성하도록 돕기 위해 명혜망에 행사 보도를 제출할 때의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하고자 한다.

1. 행사 보도의 구조

뉴스 보도는 최소한 사건의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6대 요소로 요약되는데, 즉 언론학에서 자주 말하는 육하원칙인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서(Where)’, ‘언제(When)’, ‘왜(Why)’, ‘어떻게(How)’다.

‘누가’ 부분에서는 행사의 주최자, 참가자, 수련자 등 행사 참여자와 그 이면의 관련 배경을 묘사해야 한다. ‘무엇을’ 부분에서는 행사의 내용과 관련 배경 정보를 묘사해야 한다. ‘어디서’ 부분에서는 행사가 개최된 장소를 설명해야 한다. ‘언제’ 부분에서는 행사가 지속된 시간대를 설명해야 한다. ‘왜’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해당 행사를 개최한 목적을 알려야 하며, ‘어떻게’ 부분에서는 행사의 과정을 상세히 묘사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글에 서술된 모든 사실이 정확하고 틀림없으며 표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행사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행사 자체, 개최 장소 및 수련자가 행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묘사한다. 그런 다음 행사에 참가하러 온 전문직 종사자, 관객, 행인,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해 관련 행사, 행사에 참여한 수련자, 나아가 진선인(眞·善·忍)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해 어떤 소감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그중 사전에, 현장에서, 혹은 사후에 정부 관원이나 행사 주최 측을 인터뷰해 그들의 견해, 피드백, 건의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좋다.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한 자원봉사자(수련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이 행사에 참가했는지, 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지, 그리고 관련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알아볼 수 있다.

훌륭한 보도에는 반드시 사진이 곁들여져야 하는데 특히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 사람들은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하므로 사진은 글의 내용과 호응해야 한다.

이상적인 보도의 분량은 600자 이상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충분한 내용을 갖출 수 있다.

2. 명혜망 행사 보도의 작성 스타일

명혜망의 행사 보도는 대법제자가 걸어온 수련의 길을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일반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련자 내부의 공유와 기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의 일부 상태로 인해 명혜망 보도(해외이든 중국이든 막론하고)는 언론으로서 명혜망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여전히 명백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행사 보도를 읽는 일반 독자에게 있어 우리가 행사 보도를 작성하는 목표는 그들이 가장 힘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파룬따파에 관한 사실과 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행사 보도를 작성할 때 개인의 수련 체험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인터뷰 대상자인 수련자가

내면의 깨달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보가 행사 보도의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일상적인 어휘로 변환해 수련자 내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은 피해야 한다. 내용이 너무 높으면 대중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속인’,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다’, ‘사람을 구하다’, ‘진상을 알리다’, ‘구세력’ 등 수련자 내부에서 자주 하는 말은 시민 독자에게 소외감, 배척감, 강압적인 느낌, 감정적인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행사 준비 과정의 내부 세부 사항을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보도가 지향하는 독자가 대중이기 때문이다. ‘내부와 외부는 구별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며 집안과 직장에서의 말하기 방식이 다르듯이, 대중 독자를 대할 때 우리는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고 친근하게 느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정보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특정 문맥에서 ‘속인’이나 ‘세인’은 보통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대중을 향한 보편적 전파, 뉴스 보도 또는 일상적인 교류에서 이러한 어휘는 독자에게 ‘우리 편’과 ‘남의 편’이라는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표현을 더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포용력 있게 만들기 위해 ‘시민’, ‘대중’, ‘공중(대중)’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러한 어휘는 현대 중국어의 표준 표현으로 신분의 고하를 암시하지 않으며, 공공 업무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문맥에서는 보통 ‘대중’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가장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표현은 ‘사람들’, ‘모든 사람’, ‘여러분’ 등 일상 용어다.

만약 작성자의 원래 의도가 ‘아직 상황을 모르는 사람’ 또는 ‘일반 서민, 시민, 이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진상을 모르는 군중’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을 아직 모르는 시민’이라고 하는 편이 낫고, ‘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또는 ‘대중’이라고 하는 편이 나으며 그래야만 뉴스화된 표현이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속인에게 진상을 알리다’는 ‘대중에게 사실을 설명하다’로 고쳐 보도의 공식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는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로 고쳐 관심의 광범위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한 속인이 다가와서 말했다’는 ‘지나가던 한 시민이 다가와서 말했다’로 고쳐 현장감과 진실성을 더할 수 있고, ‘세인을 구하다’는 ‘사람들을 돕다’로 고쳐 종교적 색채를 낮출 수 있다.

보도를 작성할 때 행사가 열린 장소에 따라 구체적인 신분 호칭을 사용하면 더욱 진실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거리서명 운동이나 전단 배포 보도라면 ‘행인’을 사용하고, ‘현지 주민/시민’은 지역사회 속성을 더욱 강조한다. 관광지에서 진상을 알리거나 선원(神韻) 같은 문화예술 공연 보도라면 ‘관광객/관객’을 사용하며, 다양한 직업 배경을 가진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각계 인사/정계 인사/현지 각계 인사’를 사용한다.

공공 전파와 뉴스 작성에서 강렬한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적 성향을 띤 어휘는 보통 ‘부담을 주는 어휘(Loaded Language)’라고 불린다. 이러한 어휘는 흔히 사실 진술을 건너뛰고 독자에게 작성자의 도덕적 판단을 직접적으로 강요한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 측면에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개인적 감정이 담긴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 요점은 정량화 기준이 부족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아닌 작성자 개인의 느낌을 반영하는 데서 출발하는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다. 대안은 구체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위대한 성취’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달성한 지표를 나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강렬한 감정적 색채를 띤 동사를 피하는 것이며 대안은 중립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꼬리표 붙이기와 비인간적인 호칭을 피하고 직업, 국적 또는 구체적인 집단 호칭, 예를 들면 ‘관련 종사자’, ‘시위자’, ‘반체제 인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절대화된 부사를 피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휘는 논리적으로 검토를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자를 설득하려는 조급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전부’, ‘완전히’ 등을 ‘매우 가능성이 높다’, ‘상당 부분’, ‘어떤 상황에서는’ 등 더 엄격한 한정사로 바꾸어 사용하면 보도를 읽을 때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분별력 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 위대한 장거는 세인을 놀라게 했다’는 ‘이 행동은 여러 나라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로 고칠 수 있고, ‘사악한 탄압에 직면해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법적 소송과 행정 처벌에 직면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했다’로 고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어휘로 사실을 묘사해 작성자의 주관적인 결론이나 판단을 독자에게 직접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힘은 흔히 객관적인 사실 속에 담겨 있다. 당신이 독자 앞에 사실을 제시하고 그들 스스로 ‘이것은 위대하다’ 또는 ‘이것은 비열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면

당신의 글은 가장 큰 효과를 얻게 된다.

이 외에도 일부 특정 독자층에게 있어 어떤 ‘우리 편’ 어휘는 강한 이질감과 ‘설교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비록 ‘우리 편’에서는 일상적인 어휘일지라도 대중의 눈에는 매우 강한 개인적 신앙 색채를 띠게 돼 ‘중립적인 독자’에게 경계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읽기와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명혜망의 뉴스 작성 스타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대법제자의 뉴스 작성 기본 요건에 관하여’(총 6부) 및 ‘커피에 설탕 조금 넣기—제목과 도입부부터 시작해 진상 글의 가독성 발굴하기’(총 3부).

3. 사진 및 영상

명혜망의 모든 보도에는 최대 20장의 사진을 곁들일 수 있다. 이상적인 사진 크기는 200KB에서 3MB이며 이는 사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명혜망의 인쇄 출판물에 사용할 때 여전히 좋은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카메라를 수평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명혜망에서는 가로 사진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행사의 짧은 영상을 제출해 명혜망 영상 제작팀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글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곁들일 때는 반드시 카메라가 지면과 완전히 평행이 되도록 해 화면 속 피사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카메라 초점은 반드시 선명해야 하고 피사체가 흐릿해서는 안 된다. 대법 행사를 촬영할 때는 현수막과 전시판이 온전하게 찍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그 위의 문자 정보를 잘

라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울러 현수막의 문자와 도안 순서가 올바른지(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인하고 좌우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자와 사진 자체에 대한 존중이다.

사진의 배경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하다.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쓰레기통, 청소차, 낙서된 벽, 부적절한 광고, 저속한 도안이 그려진 옷을 입은 행인 등 사진을 지저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화면 배경에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 이후 상대방에게 사진 촬영을 원하는지 묻고 반신(허리 위) 사진을 한 장 촬영해야 한다. 가급적 인터뷰 대상자를 단독으로 촬영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수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은 찍지 않도록 한다. 서양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인터뷰하고 촬영할 때 원칙적으로 반드시 보호자의 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사진 촬영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며, 인터뷰 대상자가 고개를 숙이고 청원서에 서명할 때 사진을 찍거나 다른 수련자와 대화할 때 사진을 찍는 등 이러한 종류의 사진을 인터뷰 대상자의 첨부 사진으로 제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다.

4. 보도 제출

행사 보도를 제출하려면 명혜망 투고 플랫폼에 로그인해 16번째 범주인 ‘기타’를 선택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고 보도의 첨부 사진을 동봉하며 편집부가 보도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성명, 거주 국가 및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야 한

다.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글을 여러 번 통독하고 오탈자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상은 행사 보도의 몇 가지 기본 요건일 뿐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그저 더 많은 수련자에게 참여를 시작하고 보도 전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명혜망에 더 많고 훌륭한 지역사회 보도를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다 함께 펜을 들어 사람들이 진상을 깨닫는 이 빛나는 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진선인이 개인,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돕자.

화를 잘 내는 집착을 닦아 없애다

글/ 미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늘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고민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반이 푸에르토리코 혈통이라 라틴계입니다. 라틴계 혹은 히스패닉계는 ‘열정적인 기질’로 유명한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쪽이었습니다.

형은 체형이 좀 뚱뚱하고 동작이 어눌해서 저는 별명을 불러 그를 화나게 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형을 자주 괴롭혔고 몇 번은 형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십 대가 되어 어머니와 형 곁을 떠나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

를 내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감추는 법을 배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17살에 대법을 얻었을 때 저의 성격이 많이 누그러들었습니다.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주변 모든 것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전하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덕분에 대법이 저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 제9강에서 “성격이 좋지 않으면 고쳐야 하지 않는가. 연공인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집착과 물질이 잠복해 있었는데 이것들은 수련의 길에서 결국 닦아 없애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꾸린 후 사부님께서 그것들을 밀어내 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 제6강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여전히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후 저는 아내나 아이들이 귀찮게 느껴지는 이유를 수없이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 저의 개인 공간과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차지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저는 꽤 잘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차분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폭발해 견잡을 수 없는 분노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늘 부끄러움이 밀려와 안으로 찾고 수련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안으로 찾고 자신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폭발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들은 실제로 가족이 잘못된 것들이거나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저는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화를 내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폭발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에도 저는 화를 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의 집착심은 그 속에 계속 숨어 있다가 매년 몇 차례 추한 괴물처럼 튀어나와 가족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됐는데 2021년 중공 바이러스 봉쇄 기간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신과 마스크 격리 조치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고 사회 전체가 극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미시간주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백신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어머니와 형은 저희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의 요구로 인해 저와 아내는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백신을 접종했고 아이들은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해 막 문을 들어서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자 형이 저와 가족에게 적대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마스크 써!” 형과 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은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두 백신을 맞았고 백신 접종자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대우가 불공평하다고 느껴 격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싫어!” 그러자

형이 제 얼굴에 주먹을 날려 코피가 났습니다. 아직 반격할지 결정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친척들이 달려들어 저희를 때어놓았고 이번 여행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더없이 훌륭하고 신성한 기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지극히 치밀한 안배로 어릴 때 형에게 입혔던 괴롭힘에 대한 업을 갚게 함과 동시에 화를 잘 내는 집착심을 완전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느낌이 창피하고 끔찍했을지라도 더없이 좋은 수련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내면은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형과 싸워 이겼는데 형이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끔찍하게 느껴졌고 자신이 체포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이런 생각들은 분명 수련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단속하는 데도 화를 내며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당신이 자녀를 단속한다 해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은 진정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좀 이지(理智)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다. 작은 일마저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도 공이 자라게 하려고 생각하는가.”

형은 집안에서 늘 감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했고 마리화나를 자주 피워 정신이 손상돼 사실상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줄곧 그의 나쁜 행동을 혼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법공부를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

다. 하지만 이 고비를 진정으로 돌파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의 가장 나쁜 집착이 파헤쳐져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철저한 보통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이미 수련된 부분은 따로 떼어두시고 이제 가장 밑바닥에 이르셨으니 여전히 보통 사람의 상태인 이 부분이 밀려나와 개변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명혜망을 읽으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도 명혜망 교류 글을 읽으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진정으로 깊이 빠져들어 습관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글들을 다시 읽으니 한 글자 한 글자가 주옥같이 느껴졌고 글자 하나하나가 감로수처럼 제 몸에 묻은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설령 글쓴이가 개인 체득을 나누는 것이고 그중 일부 관점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출발점과 초심은 더없이 귀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느낌은 이 글들을 읽고 이해한다면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보통 사람, 즉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심에 갇혀 업력을 갇으며 힘겹게 버티는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경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믿기 어려운 경험도 했습니다. 명혜망의 어떤 글이 제가 겪고 있는 일이나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줄 때 저는 그 글을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자주 설법하시던 시기가 떠오르게 했는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상황을 겨냥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보통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분명 저의 삶과

수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형에게 사과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대법이 없었다면 저는 어머니와 형과 이미 남남이 됐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존께서 대법을 전하시고 저를 수련으로 이끌어주신 홍대하신 자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얕은 견해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비로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수련생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병업 고비에 대한 나의 견해

[명혜망]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적잖은 수련생들이 잇따라 비교적 심각한 병업 가상(假象)을 겪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갑자기 퇴직연금이 끊긴 것도 모자라 이미 받은 퇴직연금까지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갑작스럽고 커다란 고난이 닥쳤다. 내가 직접 아는 사람만 해도 6~7명이나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미 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

이 수련생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수련했음에도 여전히 심성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는 것이다.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누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전부 상대방 잘못으로 돌리며 안으로 찾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려 하지 않는다.

이 수련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 법공부, 연공, 발정념, 진상 알리기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한 사람 수가 1~2만 명, 심지어 그 이상인 수련생도 있다. 게다가 1999년 ‘7·20’ 이후 중국 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을 때 이 수련생들 대부분은 매우 확고하게 생사를 내려놓고 사악한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큰 풍량은 다 넘겼으면서 정작 작은 도량에서 배가 뒤집혔다.

일상생활 속 사소한 일들에서 심성을 닦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보통 사람처럼 대처한다. 이들의 성격은 대체로 매우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평소 자기 말이 곧 법이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다 상대방 잘못으로 여기며 안으로 찾지 않는다. 수련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어떤 이는 자주 화를 내고 사람들을 나무란다. 어떤 이는 이것도 저것도 좋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오랜 세월 형성된 자신의 관념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뿐 대법으로 가늠하려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수련생은 책 한 권이 없어지자 함께 법공부하는 수련생이 가져갔다며 단정 짓고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속을 끓인다. 또 어떤 수련생은 안으로 찾으라고 말하면 배우자나 다른 수련생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

지 않는다.

의존심이 유독 심한 수련생도 있다. 무슨 일이든 남에게 기대며 이번에 누가 도와줬어도 다음에 또 스스로 잘하지 못해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신은 전혀 머리를 쓰지 않고 다음엔 스스로 잘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버린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거나 소설을 읽느라 눈이 침침해질 정도인데도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들여다본다.

자신의 집착을 죽어라 붙잡고 놓지 않으니 완고한 관념이 큰 산처럼 도무지 옮기기가 어렵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넘기지 못하면 시간이 쌓이면서 생사의 큰 고비가 돼버린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부 수련생은 병업관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큰 부분에서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으며, 법에 대해 매우 확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사악이 틈을 탈 것인데, 많은 수련생이 작은 일 때문에 심지어 가버렸다. 정말로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수련은 엄숙한 것이고, 누락이 없는 것인데, 당신이 그런 일을 장기간 닦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작지만, 당신이 장기간 중시하지 않았기에 곧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때문에 갔다.” (각지 설법 13-2015년 미국서부법회 설법)

어떤 수련생은 법공부를 할 때 그저 책을 읽기만 할 뿐 대법의 요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실제적인 수련을 하지 않는다.

남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수련인에게 좋은 일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고 심성을 높일 기회다. 얼른 이 기회를 잡아 향상해야 한다.

수련인으로서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하며 화를 내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이 ‘실마리’를 따라 안으로 잘 찾아봐야 한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지 못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발견해 제거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겠는가? 수련이란 자신의 집착과 좋지 않은 집착을 닦아 없애고 끊임없이 심성을 높여 층차를 높이고 마침내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처럼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수련의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다. 방법이 맞아야 공(功)이 자랄 수 있다. 수련의 방법을 바로 찾지 못하면 소법소도(小法小道)와 다를 바 없다.

지금 수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서 빨리 시간을 다잡아 안으로 찾고 집착을 제거하며 용맹정진하자!

개인적인 천견(淺見)으로 수련생 여러분께 일깨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교류하고 함께 정진하길 바란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법의 소중함과 법 암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법을 꾸준히 외우는 과정을 시작했다. 처음 두 달에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다 외우는 것에서 시작해(나는 예전에 법을 외운 기초가 있었지만 꾸준히 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 달에 ‘전법륜’을 한 번 외우고 다시 2주에 한 번 외우기까지 나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을 외워도 마음에 와닿지 않기 시작했고 사람 마음도 팽창하기 시작했다. 옷을 사는 데 집착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보면 사고 싶어 했다. 간식 먹는 것에도 집착해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

어떤 수련생이 일주일에 ‘전법륜’을 한 번 다 외우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부족함을 알게 됐다. 나는 분발해 뒤쫓아야 하며 만족하거나 느슨해지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속도를 높여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을 버틴 후 효과가 좋지 않음을 발견했다. 외우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지만 법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몸이 매우 피로하고 힘들었으며 연공을 할 때도 입정할 수 없었다.

나는 법을 빨리 외우려는 생각 이면에 집착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내게 물었다. ‘왜 법을 외우는 속도에 집착하는가?’ 나는 내가 해낼 수 있고 수련생에게 뒤지지 않음을 실증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쟁투심과 질투심이며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법 암기

를 이용해 자신을 실증하려는 것은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심각한 불경이기에 나는 즉시 발정념을 해 이런 사람 마음을 제거했다.

나는 사부님과 대법에 불경한 내 행위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법을 읽든 외우든 모두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며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에 스며들게 해 자신을 바로잡아야만 법공부를 해 법을 얻고 대법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더 이상 법을 외우는 속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을 이용해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을 해체하다

정법시기 수련의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수련생과 정체를 형성해 법을 실증하고 박해를 반대하는 일을 비교적 순조롭게 해냈으며 두려운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정체가 파괴됐다. 나 개인도 장기간 시련 속에 처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매우 무거워졌으며 소극적이고 침체되며 자책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감정 속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최근에야 나는 박해를 대하는 내 태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나는 줄곧 개인 수련의 각도에서 사악의 박해를 대하며 박해가 발생한 것은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법을 외우고 연공하며 잘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잘되지 않았고 박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는 내가 잘하려고 한 출발점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세력의 배치를 인정한 것이며 구세력의 배치 속에서 잘하려는 것은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며 사부님을 도와 정

법하고 박해를 반대하러 온 것이다. 사악은 존재가 허용되지 않으며 정념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마성의 발현이다. 혼자 집에 숨어서 법공부를 하며 사악이 날뛰게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이기심인가!

나는 또 세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할 때마다 의기소침해지고 자책하며 자격지심과 자기 의심에 빠지는데 그 이면에는 원만을 추구하는 마음과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다. 경찰의 박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공포, 원망심, 쟁투심 등 이런 사람 마음과 사람의 정 이면에는 안일함과 원만을 추구하는 마음 등이 있었다.

우리는 신의 길을 걷는 생명인데 이런 사람 마음과 인정을 원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발정념을 해 그것들을 제거하고 해체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자신으로 여긴다면 수련인의 의지를 갇아먹어 가장 어렵고 힘들며 견디기 어려울 때 정념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 결국 사악의 음모가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교란과 박해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이것이 바로 구세력의 배치다.

우리가 실증하는 것은 법이지 자신이 아니다. 대법에 대한 사악의 박해에 직면해 개인 수련처럼 맹목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되며 정진해 박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사부님 제자이므로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는다.

개인 수련에서 깨달은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공산당 수업: ‘연공이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거짓말인가?

글/ 필농(筆農)

[명혜망]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대한 통치 덕분에, 1999년 당시 1억 명이나 됐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제는 씨가 마른 것처럼 사라졌네. 적어도 아침마다 공원에서 흔히 보이던 그 성가신 수련 인파는 말끔히 일소됐지. 우리는 법적 절차 따위는 건너뛰고, 상부에서 내려온 할당량과 구두 지시 한 마디면 수백, 수천 명을 똑딱 잡아 가둘 수 있다네. 이 모두가 파출소, 주민센터, 그리고 거리 곳곳을 수놓은 CCTV의 빛나는 성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우리 당이 27년간 피땀 흘려 연구한 결과, 파룬궁이란 것이 얼마나 사회 안정에 해악을 끼치는지 날낱이 밝혀졌다네. 젊은이가 수련하면 부패할 기회를 스스로 건어차고, 중년이 수련하면 불륜의 즐거움을 마다하며, 노년이 수련하면 ‘흰 가운 입은 늑대(역주: 강제 장기적출을 일삼는 의사)’의 소중한 수입을 갉아먹지. 이쯤 되면 파룬궁 탄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네. 탄압을 계속하는 건 곧 ‘우리 당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니까. 1/4세기가 넘도록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을 ‘적’으로 규정해온 것, 이야말로 우리 당이 아직 건재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나.

반면 대만을 보게나. 같은 황인종에 같은 중국어를 쓰면서도,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현수막과 수련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나. 이는 그들이 국민의 사상과 언론과 일상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처참한 증거라네. 그들이 떠벌리는 ‘민주’와 ‘자유’

란, 사실 그 한심한 무능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름에 불과하지.

일부 철없는 자들은 이를 근거로 ‘연공이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그들은 우리 당의 사전에는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야. 당이 하는 모든 것은 옳지. 옳은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을 핵심으로 삼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잘 포장해도 반동이라네. 이걸 당의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우리 당의 독특한 언어 체계는 두 가지 위대한 생존 지혜 중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총이지.

어떤 한심한 자들은 ‘사회의 안정은 촘촘한 감시와 강압 위에 세워져야 하나, 아니면 다원적 사상의 포용과 법치 위에 세워져야 하나’가 지난 1/4세기가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과제라고 떠들어댄다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너무 어리고 너무 단순하며, 때론 그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지’. 그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마지노선을 내려놓고, 어떻게 ‘입 닥치고 돈이나 버는지’, 어떻게 ‘이익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를 당에게 배워야 한다네. 그래야 우리 당의 강산이 영원히 굳건하고, 총대를 영원히 질 수 있지.

한 가지만 짚고 가세. ‘진(眞)’은 정보 봉쇄와 정치 구호로 먹고사는 권위주의 통치에 치명적이라네. ‘선(善)’이라고? 사람 사이의 보편적 선의란 ‘정글의 법칙’과 ‘투쟁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권의 흥악함을 갉아먹는 독약이지. ‘인(忍)’이라고? 당이 원하는 건 권력에 대한 ‘복종’이지, 진실과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강인함 따위가 아니라네. 바로 이것이 같은 문자, 같은 인종인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이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줄 때, 당이 세계 각국 정부에 대고 공개적으로 ‘과룬공 인권’을 입

에 올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이유라네. 비록 그것이 27년간 중국 최대의 인권 문제일지라도 말이지!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네. ‘연공이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거짓말인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뻔뻔하게 거짓을 내뱉고, 양심이니 정의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당원의 기본 소양이라네. 설마 당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를 ‘인민’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4·25’는 텐진 사건만이 원인인가?

글/ 정암(鄭岩)

[명혜망] 공개된 자료에서는 통상적으로 텐진(天津) ‘청소년과 학기술펠람(青少年科技博覽)’ 잡지에 게재된 허쥬슈(何祚庥)의 글과 그 후 텐진 경찰의 납치 사건을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지 글 한 편과 국지적인 충돌만으로 만여 명이 넘는 청원 행동을 촉발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당시 중국공산당(중공) 내부에서 파룬궁(法輪功) 단체에 대한 태도는 이미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이용돼 최고 결정권자의 탄압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는가?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쉽다. 사상을 통제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중공의 주요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설파하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에 부딪히든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을 출발점이자 목적으

로 삼아 자신과 타인의 언행을 포함해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해 파룬궁은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며 자살의 본질은 살생이고 살생은 죄업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어떤가? 당을 위해 헌신하라고 맹세하게 하며 당의 이익이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가치관이자 도덕 체계다. 민간에서 파룬궁이 누리는 인기를 고려할 때 공산당은 조만간 손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공산당이 손을 쓰는 데는 변명이 필요 없고 단지 몇 가지 새로운 구호나 죄명만 조작하면 됐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글 한 편이 만여 명이 넘는 청원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가? 특히 평화롭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말이다. 답은 ‘아니다’다. 왜 글 한 편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1. 기공 열풍

1991년 중국인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공산주의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중공은 중국에서도 ‘평화적 이행(和平演變)’이 일어날까 봐 매우 두려워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전국적인 기공 열풍을 걱정해 중공은 ‘9인 실무조’를 설립했다. 이 실무조는 국가체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생부, 안전부, 중앙선전부, 재정부,公安부, 총정치부 연락부, 무장경찰본부 등의 장차관급 관리들로 구성된 고위급 조직으로 기공 단체를 엄밀히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 파룬궁의 탁월한 건강 효과로 인한 조사

1994년 파룬궁은 공안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나고 ‘진선인’을 설파했기 때문에 파룬궁수련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1994년 일부 지역에서는 파룬궁 단체에 공안 요원을 파견해 ‘잠입’시켰으나 아무런 ‘이상 상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1994년 말 파룬궁 창시자는 중국 국내에서 공법 전수를 중단했다.

3. 심신에 유익해 급증한 파룬궁수련자 수

1996년 파룬궁수련자 수는 다른 어떤 기공보다 많았다. 명단이 없고 오가는 것이 자유로워 정확한 숫자는 없었지만 파룬궁 측은 수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 중에는 당정 간부, 특히 은퇴한 노간부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 창시자의 막대한 영향력을 극도로 질투했고 파룬궁이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고 이용당하려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4. 1996년 광명일보 사건

1982년 5월 13일 당시 중앙선전부 부장이자 훗날 중공 중앙 총서기가 된 후야오방(胡耀邦)은 중앙선전부에 기공과 특이공능(초능력)에 대해 ‘홍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는 ‘3불(三不)’ 정책을 하달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3월 장전환(張震寰)이 주재한 특이공능 시범을 당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모 국 부국장이자 후에 정치위원이 된 우사오쭈(伍紹祖)가 관람했다. 우사오쭈는 시범 관람 후 후야오방 총서기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과학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오가 지구 자전설을 견지하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모건이 유전자 이론을 제안했을 때 모두 세속 세력의 가혹한 비판을 받았고 새로운 학설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브루노처럼 말입니다. 소련은 유전자 이론을 자산계급 유심주의의 사이비 과학이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찍었지만 사실은 리센코 학설이야말로 사이비 과학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오래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종종 과학적 도약의 전조가 되며 일단 발견돼 과학적 이론으로 격상되면 매우 중대한 과학적 의미와 실용적 가치를 지닙니다.’

1985년 칭화대 이론핵물리학 연구원 출신으로 당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치위원이었던 우사오쭈는 중국 핵화학공학자이자 전 중국과학기술대 총장, 중앙선전부 부부장, 중국과학원 부원장인 텅텅(滕藤) 및 칭화대 공정물리학과 실험핵물리학 전공으로 당시 안전부 부장이자 당조 서기 겸 당서기였던 자춘왕(賈春旺)과 연합했다. 이 세 명의 정부 주요 부서 책임자들은 상부 지도자들에게 특이공능의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직접 특이공능 연구와 관련 정책 및 관리 업무를 맡겠다고 자원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은 관련 책임자의 비준과 동의를 얻었고 이로써 중국에는 ‘인체 과학 3인 영도 소조’가 생겼다.

1996년에 이르러 중앙선전부 부부장 쉬광춘(徐光春)은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해 10개 중앙 주요 일간지 편집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광명일보(光明日報)’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으며 다른 주요 신문들에도 전재하도록 지시했다.

쉬광춘은 당시 파룬궁에 ‘초보적이고 조악한 사교(邪教)’라는

모자를 씌우려 했다. 그러나 ‘광명일보’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기사가 실린 후 관련 부서에는 파룬궁의 진실을 밝히는 수십만 통의 시민 편지가 쇄도했고 이로 인해 관련자들의 파룬궁에 대한 추가 탄압은 일시적으로 보류됐다. 2014년 6월 2일 중공 ‘법제만보(法制晚報)’가 공안부 [2000] 39호 문건의 통지를 공개적으로 재천명하며 파룬궁이 사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은 나중의 일이다.

5. 1997년 두 차례의 비밀 조사

1997년 1월과 7월 뤼간(羅幹)이 장악한 공안부는 전국적으로 파룬궁을 두 차례 조사하며 ‘사고’로 규정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각지 공안국은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모두 ‘아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부 1국이 발표한 공정(公政) [1998] 제555호 ‘파룬궁에 대한 조사를 전개할 데 관한 통지’는 여전히 파룬궁을 ‘사고’로 칭했다.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공개적인 법 집행 위반과 언론의 여론몰이는 정치 운동에 흔히 쓰이는 전주곡이다.

6. 1998년 베이징 방송국 사건

1998년 5월 칭화대를 졸업하고 ‘양자역학의 발전은 장쩌민의 3개 대표 이론이 과학 기술 혁신 평가 체계의 근본적 기준임을 입증했다’고 단언하는 글을 썼던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뤼간의 동서인 허쥘슈가 베이징 방송국(BTV) ‘베이징특쾌(北京特快)’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으로 파룬궁을 헐뜯었다.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이 소식을 듣고 베이징 방송국을 찾아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설명했다. 베이징 방송국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정정 보도를 했다.

7. 허궈슈 베이징에서 발언 금지돼

허궈슈의 도발은 당시 베이징의 한 부시장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가 베이징의 언론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베이징에서 발언이 금지된 것이 바로 1999년 허궈슈가 텐진으로 옮겨 비방 글을 발표한 이유다.

8. 공안부 다시 도발

1998년 7월 21일 공안부 1국은 또다시 전국 공안 부서에 통지를 보내 신장, 헤이룽장, 허베이, 푸젠 등지의 일선 공안 부서가 강제로 연공하는 시민들을 해산시키고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하며 민가에 무단 침입해 개인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9. 은퇴 원로 간부들 조사 보고서 제출

각지에서 벌어지는 공안의 괴롭힘에 맞서 파룬궁수련자들은 잇달아 상부에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1998년 하반기 차오스(喬石)를 비롯한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은퇴 원로 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해 일정 기간 상세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끝에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수많은 이로움이 있을 뿐 해로움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말에 장쩌민을 수반으로 하는 정치국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국에서 조사 보고서를 본 후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朱鎔基)는 매우 기뻐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공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비준을 했다. 주룽지의 비준은 경제와 사회 관리의 효율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만약 어떤 공법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의료 보험비를 절감해주고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 ‘4·25’ 청원에 참가했

을 때 파룬궁수련자들은 비로소 주룽지 총리가 98년 말에 위와 같은 비준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쩌민은 인민대표대회 은퇴 원로 간부들의 조사 보고서를 보고 매우 불만을 품었으며 그 보고서를 튀간에게 넘겼다. 당시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였던 튀간이 장쩌민이 전달한 이 보고서를 받고 장쩌민의 태도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는 중국 체제의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튀간이 주룽지의 비준을 직접 압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십중팔구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0. 1999년 텐진 사건

튀간의 지지하에 베이징에서 발언이 금지됐음에도 허쥬슈는 1999년 4월 11일 텐진 교육대학 ‘청소년과학기술박람회’ 잡지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글을 다시 발표했다. 나아가 ‘망국(亡國)’이라는 차원으로 비화시키고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모자를 씌웠다. 까닭 없이 모욕을 당한 다양한 연령, 교육 배경, 직업 배경을 가진 파룬궁수련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심정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텐진 교육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가서 실상을 알렸다. 4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텐진시 공안국은 진압 경찰을 동원해 구타를 가했고 이로 인해 수련자들이 피를 흘리며 다쳤으며 45명을 납치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석방을 요구했을 때 텐진 시정부에서는 공안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베이징의 허가가 없으면 납치된 파룬궁수련자들을 풀어줄 수 없다고 알렸다. 텐진 공안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직접 권유했다. “베이징으로 가시오. 베이징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소.”

‘베이징으로 가라’? 베이징이 저렇게 넓은데 어디로 가야 이 긴

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 소송,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언론 채널이 모두 통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현관(縣官, 높은 관리)’이나 ‘현관(現管, 직속 상관)’이 모두 소용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이 관리를 고소해도 법원이 감히 나서지 못하고, 차오스 같은 급의 은퇴 원로 간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마저 장쩌민 개인의 의지에 의해 부정되며, 언론이라는 ‘제2의 민원실’조차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가에서 ‘포청천(包青天)’은 어디에 살며 관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각해보라. 지금도 중국의 서민들이 급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거는 것 외에 정부 청사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신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특히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한다. 길을 물을 때도 경찰을 찾고, 지갑을 주워도 경찰에게 주며, 사건을 신고할 때도 경찰을 찾는다. 그래서 제복을 입은 경찰이 청원 시민들에게 신화문(新華門) 밖 담장 옆에 서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을 때 시민들이 그 배치에 따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이나 공공 재산에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는가? 또 누가 억만 중국인의 기본 인권과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기어코 파룬궁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는가? 누가 이 박해를 거의 30년 동안 지속했는가?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해서인가? 파룬궁을 가상 적국으로 삼은 이 정치 운동은 중국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중국의 법치에 또 어떤 치명적인 증상을 입혔는가?

정보의 비대칭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독립적 사고를 유지할 것인가?

글/ 효가(曉哥)

[명혜망] 시사 변화는 매우 복잡해 종잡을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역할의 표현을 역사의 긴 흐름 속에 놓고 보면,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파괴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일목요연하다.

2026년 4월 5일, 중공 신화사(新華社)는 미국이 이란의 손에 조종사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폭탄을 투하해 미군 조종사를 폭사시키려 했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낮에 미국이 이 미군 병사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생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호 정신을 입증했다. 중공의 선전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됐다. 댓글 창에서 네티즌들은 중공 매체는 문장부호조차 믿을 수 없다며 “수치심조차 없는데 지조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사람들은 중공의 이런 거짓말이 폭로되는 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신용 파산임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

만약 그날 거짓말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무수히 많은 중국인이 이 소식에 속았을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으로, 중공은 모함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사람의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총알받이’로 여긴다고 암시했다. 사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적이 있다. 라이언 일병을 찾고

구하기 위해 몇 명의 미군이 차례로 희생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미 ‘인간성’의 빛나는 점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중공은 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릴까? 중공이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의 한 중대 병사들은 기본적인 방한 장비(솜외투, 식량)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엎드려 대기하다가 중대 전체가 모두 얼어 죽었다.

미국 작가 존 톨랜드는 한국전쟁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20파운드짜리 폭탄과 동축 기관총의 화력이 몰려드는 군중 위로 떨어졌지만, (중공) 병사들은 여전히 탱크에 기어올라 해치를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탱크에 거듭 공격당해 탱크에서 떨어졌다.” “탱크 위에는 사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탱크 주변에는 피가 흘렀다. 궤도에도 핏자국이 가득했다.” 병사들은 극심한 굶주림, 부상, 또는 탄약과 식량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살식 공격을 감행하며 몸으로 지뢰를 굴리고 폭약을 안고 돌격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이다. 서방 매체와 참전 용사들은 이러한 공격을 언급할 때 종종 ‘광신(Fanatic)’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순수한 용기가 아니라 인명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역사가 맥스 헤이스팅스는 저서 ‘한국전쟁’에서 이러한 행위는 극단적인 ‘세뇌’로 인한 것이며 매우 잔혹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식 선전에서는 이것을 무산계급 영웅주의이자 두려움 없는 희생정신이라고 선전한다.

서양 문화에는 “진리는 고수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영원히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거짓말은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행동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기만과 경시다.

1949년 이전 중공은 지주가 제공하는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주를 단결해야 할 세력이라고 소리 높여 선전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진반(鎭反, 반혁명 진압)운동’에서 지주는 진압 대상이었고, 그들은 중공이 농촌 사회를 점유하는 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240만 명의 지주가 진반 운동으로 살해됐다.

1958년 중공은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앞지르자는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고, 1960년대에 이르러 대약진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식량을 무리하게 수탈한 탓에 3년간의 대기근이 발생해 (보수적인 추산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들은 주로 농민으로, 중공이 한때 의지했던 이른바 ‘무산계급’의 주체였다.

1966년 중공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예젠잉(葉劍英)은 문혁 기간 전국에서 “1억 명이 박해받고 2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대다수는 지식인이나 일정한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었으며, 단지 그들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은 중공의 거짓말 기계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숫자나 기호로 변해 어둠의 구석으로 추락했다.

중공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동적인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개의 거짓말을 지어내야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신화사 수석 기자 자신도 “신화사의 보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중

국의 ‘졸업이 곧 실업’, 뿌리 깊은 정부의 신뢰 상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가해는 모두 중공의 거짓말 유전자가 낳은 열매다.

중공이 군사, 역사, 민생 측면에서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한 신앙 단체를 겨냥할 때도 똑같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거짓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위선은 진심을 두려워한다. 1992년 5월 13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중국 창춘(長春)에서 전해졌는데,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삼아 병을 제거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며 단기간에 광범위한 민중의 사랑을 받아 1998년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다. 파룬궁수련자는 ‘진선인’을 근본으로 삼아 직장과 생활 속에서 매사에 타인을 배려하며 사회에 하나의 맑은 흐름을 형성했다.

파룬궁의 ‘진(眞)’과 중공의 ‘가(假, 거짓)’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장쩌민(江澤民)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외에서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2001년 1월 23일, 중공은 또 파룬궁수련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을 연출했다. 중공은 관영 통신사 신화사의 이름으로 1시간 뒤 해외에 소식을 발표해 파룬궁수련자 5명이 천안문에서 분신자살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7명으로 고쳤다.

거짓말은 사실을 바꿀 수 없었기에 중공은 음량을 키워 진상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중공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2천 개의 신문, 1천여 개의 잡지, 수백 개의 지방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총동원해 파룬궁을 모함하는 선전을 전력으로 진행했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짧은 반년 동안 중공 매체가 국내외에서 파룬

공을 모함한 보도와 비판 글은 무려 30여만 편에 달해 진상을 모르는 무수히 많은 세상 사람을 해쳤다.

중공이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은 진상을 알기 매우 어렵다. 파룬궁에 대한 거짓 모함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중국 민중이 파룬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이 정보 비대칭 시대에 독립적인 사고는 성인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다. 파룬따파는 불가(佛家) 수련 대법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져 각 민족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겨 파룬궁 수련자나 진상 자료를 보게 된다면, 진상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출국할 수 없다면 인터넷 방화벽을 우회해 살펴보라. 이는 단지 다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비교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어, 평생토록 엄청난 거짓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 타이베이 은퇴 교사 차이서우런(蔡守仁)은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 설치한 파룬궁수련생들 활동 장소에서 말했다. 1999년 4월 25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시민 1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베이징 국무원 신방관(청원사무실)으로 가서 수련의 자유를 위해 청원했다. 언론으로부터 ‘중국 청원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이성적이며 평화로운 청원’으로 불렸다. 언론에 보도된 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신속하게 대만 사회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다음 날 아침 칭넨 공원에서 연공할 때 10여 명이 와서 공법을 배웠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065만 021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